

2010 7

# 햇볕

2·28 제10권 2호 통권38호

**특 집** 西芝 金潤植 先生  
2·28민주운동 정신 특강  
2·28민주운동 교육용 교재 발간 언론 보도  
제10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시상식

**특별기고** 대구교 2·28기념탑 준공  
4·19혁명 제50주년 기념 대학생 전국순례단 출정식  
2·28기념중앙공원 청소년놀이광장으로 변신



사단  
법인

**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www.228.or.kr](http://www.228.or.kr)

moon san-gi 719

제10회 2·28민주운동 글짓기(운문) 공모



- 대구광역시장상

## 흥 터

김 선 미

경북여자고등학교 3학년

2010. 3

흥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2010. 3

흥터는 눈물이 되어

2010. 3

또 흥터는 혈흔이 되어

내 볼짝을, 가슴을, 마음을,

아픔만 남은 그 곳을 얼룩지게 한다.

그리고 지금,

50년의 강을 역류한다.

1960. 2. 28

여기 달구벌에서는

백합 같은 교복들의 붉은 외침이 들린다.

외침 속에는

독재를 질타하는 아리따운 함성

무자비에 고통 받는 차가운 절규만이

서로 처절히 융합되어

저 멀리 뜨거운 광주 땅까지

듣는 이의 귓가를 따갑게 찌른다.

정의로운 물결이 한반도를 덮어버리면

독재의 창이 힘을 잃어

날카롭게 두 동강 나고

마침내,

어두운 동굴 속 실낱 같은 출구가 보인다.

애처로운 빛의 출구로 발 딛는

그 순간,

50년의 강을 되돌아온다.

2010. 3

흥터 위 새살이 돋아난다.

201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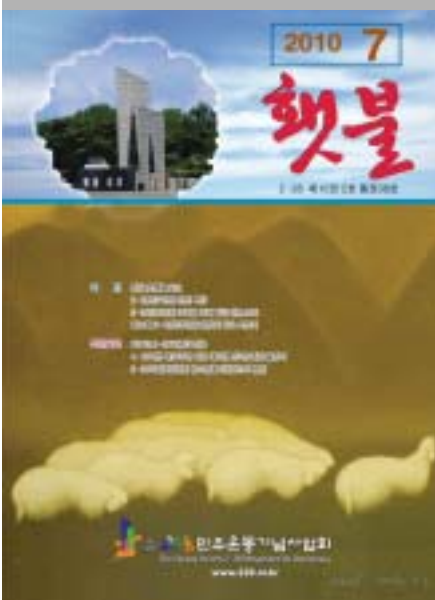
새살은 자유가 되어

2010. 3

또 새살은 기쁨이 되어

내 볼짝을, 가슴을, 마음을,

솜털이 솟아나게 될 그 곳을 씻어준다.



▲ 표지 작품-양(오일, 캔버스 15호, 2009년)  
작가: 문상직 (27쪽)

제10권 2호 통권 38호 여름

발행인 / 안 인 옥

편집인 / 김 약 수

인쇄 / 2010년 7월 15일

발행 / 2010년 7월 15일

편집위원 / 김상규, 이방현, 장영향, 김광주,

서정일, 박명철, 김동환, 김종인

발행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700-803 대구광역시 중구 남문3길 6(남산1동 843번지)

(문에서림 4층)

Tel. (053)257-0228, Fax. (053)254-0228

e-mail : 228demo@hanmail.net

homepage : http://www.228.or.kr

인쇄처 / 신문사(053)474-9000



# 햇볕

2010년 7월 제10권 2호 통권 38호 여름

- 2·28 특집**
- 04 西芝 金潤植 先生 松柏操讚
  - 13 西芝 金潤植 先生 遺攄
  - 21 2·28민주운동 정선 특강
  - 24 2·28민주운동 교육용 교재 발간 언론 보도
  - 28 제10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시상식

- 특별기고**
- 38 대구고 2·28기념탑 준공
  - 40 4·19혁명 제50주년 기념 대학생 전국순례단 출정식
  - 42 2·28기념중앙공원 청소년놀이광장으로 변신

- 문예광장**
- 43 시·녹음(線陰) / 엄원태 시인
  - 44 수필·미모사처럼 나를 여민다 / 하정숙 금오공업고등학교 교사

- 2·28 일지**
- 46 제4차 임원회의 / 햇볕지 38호 제작 편집회의
  - 47 김주열 열사 범국민장 참석
  - 48 2·28자연보호산악회 활동
  - 49 4·19 제50주년 기념식 참석
  - 50 2·28 일지

- 회원가입현황**
- 51 2010년도 회원가입 현황

※ 게재된 글은 본 사업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원고를 다음호에 게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입회안내

- ※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을 돕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 계승발전과 우리 나라 민주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 2·28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영구히 전산입력 보전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이상)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8-05-002264-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 본 법인에 납부하는 회비 및 협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1-54호)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 西芝 金潤植 先生 松柏操讚

많은 무지몽매가 다라 뒤떨어  
 억압감을 구하며 서로 다투고 있어 서도  
 아직도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은  
 알고 있는 사실  
 구원할 방법이  
 우리들의 재앙이 적당하고 있기 때문

이들 손에로 치명타  
 손이 1개 손이  
 초상 치켜 선다  
 주먹 같은 복수 손  
 허벅지는 불꽃  
 허벅지는 불꽃

정치와 서민 누구보다 용감한  
 권고의 전통이 무용무위  
 단언의 사색으로 그 위엄이 찬란하고

1950년 1월  
 1950년 1월  
 1950년 1월



西芝 金潤植 先生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교 1·2학년생들이 그 당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른 自由黨 정권의 불의와 부정에 맞서 목숨을 걸고 분연히 일어났던 2·28데모가 있는 지 금년이 50년이 되었습니다.

2·28데모는 서울·대전·부산·마산 등 전국으로 번져 3·15의거와 4·19혁명을 거쳐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자유당 정치의 막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해 10월 1일 제2공화국을 탄생케 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기운이 일게 하였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는 전취(戰取)해야만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양심과 양식의 대표가 되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28당시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표현 자유에 재갈을 물렸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서슬이 국민생활을 불안과 공포로 몰았던 현실 하에서 西芝 先生님이 혜성(彗星)같이 나타나시어 암흑세계에 신음하는 시민들에게 한 줄기 섬광으로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2·28대구학생데모를 보시고 부제로 ‘아직은 諦念할 수 없는 까닭’이란 저항시를 1960년 3월 1일(화) 「대구일보」 4면에 발표하셨습니다.

## 아직은 諦念할 수 없는 까닭

- 2·28大邱 學生 데모를 보고 -

金潤植

설령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먹장같은 구름이 해를 가리어 있다쳐도  
아직은 諦念할 수 없는 까닭은  
얇고 있는 하늘, 구름장 위에서  
우리들의 태양이 작열하고 있기 때문.

學者와 詩人, 누구보다 굳건해얄  
人間의 입들이, 붓끝이  
安易한 妥協에 그 心腸이 멈춰지고  
또는  
압사하니 關外에 遁走한 채 헤헤닥거리는, 그래서  
꼭두각시춤으로 놀고 있는 - 이리도  
惡이 고읍게 化粧된 거리에  
蒼白한 孤寂으로 하여  
『참』이 오히려 곱팡이 피는데,

그 興겨울 『토끼사냥』을  
그 자미 있을 『映畫구경』을 팽개치고...

보라, 스크림의 行進!  
『바름』을 위하여 두려움이 없는 10代の 모습,  
오래 쌓이고 쌓인 해묵은 疝疝 같은 嘔吐의 고향소리.

허영계 뿌려진 책들이 짓밟히고  
그 깨끗한 知性을 간직한 머리에서 피가 흘러 내리고  
不幸한 日曜日, 크르미. 산데이에 오른 불꽃 불꽃  
빛좋은 개살구로 익어가는 이땅의 民主主義에  
아아 우리들의 太陽이 이글거리는 모습.

< 1960. 3. 1. (화) 「대구일보」 4면에 게재 >

대구일보 (남월二월四日 戊子) (4)

아직은 諦念할수 없는 까닭

182·28 大邱學生대 모를 보고

金 潤 植

생명수가들의 머리 위엔서  
이장들은 구름이 리름가미의 외파의도  
아직은 諦念할수 없는 까닭은  
참고 있는가늘, 구름상 위엔서  
우리들의 태양이 眩惑하고있기 때문.

學友外 諸人, 누구보다 강경해야  
人間的인간이, 부끄러  
苦痛한 憂鬱에 그 心願이 破滅되고  
또는  
아름다워나 關外의 風土한과 離別가리니 그대시  
극복하지 勇氣로 氣血을 氣血으로 氣血으로  
氣血으로 氣血으로 氣血으로 氣血으로  
苦痛한 區寂으로 하여 "참"이 오리라 苦痛의  
거는미!

그 疑河는 "오리구름"을

그 疑河는 "疑河"가 疑河 疑河 疑河

모든, 스스랄의 行路!

"미움"을 疑河의 우리들의 疑河 疑河 疑河

모양, 疑河의 疑河인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모양, 疑河의 疑河인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모양, 疑河의 疑河인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모양, 疑河의 疑河인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모양, 疑河의 疑河인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모양, 疑河의 疑河인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敬呼聲,  
우리들은 疑河!

一九六〇年二月二十八日,  
우리들은 疑河 疑河 疑河 疑河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우리 아제는 疑河할수 없는 까닭은  
저리, 우리들의 태양이 이같이 되기 때문.

疑河의 疑河, 疑河의 疑河 疑河 疑河

하필 손뼉을 쳐야만 소리가 나는 것인가  
소리 뒤의 소리,  
表情뒤의 表情으로  
雨雷같은 拍手소리  
歡呼聲,  
뿌러지는 꽃다발!

1960년 2월 28일,  
우리들 오래 잊지 못할 날로,  
너이들  
고운 至誠이  
씩어가는 겨레의 가슴 속에서  
한송이 꽃으로, 향기로울 것이니.

이를 미워하는 者 누구냐  
이를 두려워하는 者 누구냐  
稚戲로 웃는 者 누구냐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의 앞날을 祝福하라.

지금은 봄  
玉梅花 하얀송이 애던 大韓의 江山에서  
三月의 初하루를 追慕하는  
너이들 學生의 달!

아아 아직은 諦念할 수 없는 까닭은  
저리, 우리들의 太陽이 이글거리기 때문.

2·28紀念塔 碑文을 지은 靑馬 柳致環 先生님이 “人間이라는 기계 -大邱의 高校生테 모 事件”이란 글을 동일자 「대구일보」에

“지난 28일 대구시내에서 벌어진 高校生들의 데모사건을 듣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기계가 작용하는 두 극점(極點)의 경우를 거기에서 목격하였다는 점에서 놀랍고도 흥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두 극점이란 인간이라는 기계가 조종주(操縱主)의 의사에 따라 한 경우는 지나치게도 잘 움직였고 다른 경우는 조종주가 대경실색할 만큼 너무나도 지나치게 그 의사에 反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이다. ……중략…….”

라고 갈파(喝破)하였습니다.

1960년 4월 11일 상오 11시 30분경 마산 신과동 앞바다에 눈에 첩편이 꽃히고 머리에 심한 파열상을 입은 채 표류 중에 있던 故 金朱烈군을 고기잡던 어부들이 발견하여 인양하였다. 3·15마산의거의 희생자 김주열 학생 피살사건을 들은 西芝 先生님은 ‘江이여 山이여 봄이여 -떨어진 꽃봉오리를 생각하며-’란 시를 1960년 4월 15일자 「대구매일신문」 제4697호 4면에 게재하였습니다.

## 江이여 山이여 봄이여

- 떨어진 꽃봉오리를 생각하며 -

金潤植

### 1.

江이여 너 서러운 울음을 멈추어라.  
山이여 너 침울한 表情을 거두어라.  
봄이여 넌 화려한 꽃잎을 뿌려라.

여기

어린 녀들이 悲痛히 몸부림 치는  
우리의 祖國 거룩한 日月 앞에

江이여 지금은 울어 서러울 때가 아니니  
山이여 오늘은 그리도 침울히 自虐에 괴로울 때가 아니니  
햇불로 훨 훨 훨...  
아아 고운 목숨 앞에  
봄이여 넌 더욱 화려한 꽃잎을 뿌리기만 하여라.

### 2.

진달래 꽃을 띄우고  
푸른 도라지 꽃을 띄우고  
들국화를 띄우고



멧꽃을 해마다 철마다 띄웠어도...

항아리

오지에 담긴 江물처럼 꽃들은 예쁘기만한데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알뜰히 바라보는 <붕어>는 여위어 들고

이젠 기다림에 지쳐 항아리도 하품을 썩고 있는데  
꽃내음 담백한 물속에서, 붕어여 너를 여위게 하는 것은

꽃이냥 물이냥 바로 그 입가에 따라도는  
이파리, 물가 품!

### 3.

사람의 念願이  
애타는 希求가

옛날 어느 暴惡한 사또(使道)를 위해 세워진  
頌德비의 글귀를 뇌까리듯  
<상투>한 하라배의 그날같은 美德으로  
거리, 거리에서 넘쳐 흐르는 獨唱, 重唱, 合唱의 소리.

이리 幸福에 가슴 부풀은  
아버지는 신나게 노래 부르는데

銃은 쏘기 위해 있는 것, 그래서  
幸福한 歌手의 어린 아들은 쓰러지고!

설령 人間이 人間을 사냥할 수 있는 密林이 있다쳐도  
우리 제마다 偉大할 수 있는 人間의 마음에 물어  
아귀처럼 그 어린것들의 뒤를 쫓아 사냥한 者  
百번 죽어 뉘우친들 모자랄 것을!

< 1960. 4. 15. 「대구매일신문」 4면에 게재 >

신보 (陰曆庚子年3月20日癸酉) 第4697號 (4)

# 江이여 山이여 봄이여

면어친 꽃봉오리를 생각하여

## 金 潤 植

꽃이남 꽃이남 바로  
그입가에 다라오는  
키다리, 풍가 풀!

3, 4월의 순원이

1,  
江이여 너 서리는 눈송이를 머구우어라.  
山이여 너 싱글한 藍靑을 기우어라.  
봄이여 너 화려한 꽃잎을 뿌려라.

2,  
여기 江은 江이 應爾히 春우일 春을  
우리의 靑靑 기우한 日月 앞에

江이여 서양은 산이 서려서고 春이아니니  
山이여 소울은 그리도 싱글히 自爾히 春  
프은 春이 아나니  
꽃은 春이 春을 春!  
아아 그은 春을 春에  
봄이여 너의 春을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여라

3,  
「전날의 春을 春우고  
우은 도마지 春을 春우고  
꽃을 春을 春우고  
春을 春이다 春이다 春이도」

말아라  
오지여 春江을 春이한 春은 春이한 春이  
나리을 春이한 春  
우의 春을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이전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봄이을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키가 작고, 머리가 작고」  
「부라질의少女」

4,  
江이여 春을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5,  
江이여 春을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6,  
春은, 春이 春을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아름다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그리나,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아름다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7,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8,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한 春이

아아 어린 주먹이 虛空을 저으며 숨 넘긴 자리에서  
아버지여 그대는, 또  
신나게 신나게 노래 불러라!

4.

꿈은, 더욱 惡夢은 깨어야 한다. 처럼  
아름다운 베일에 싸인탈은 벗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冷汗이 미어나는 惡夢에 몸은 졸리어 들고  
아름다운 베일에 적힌 고운 口號는 旗幟처럼 휘날린다.

진정, 우리가 우리를 두고 또 누구를 사랑할거나  
그 거짓의 나팔소리 거두어라. 이제부터 저 나 어린 녀들의 고운 목숨의  
깨끗한 눈망울로 살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다만  
거룩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예서  
江이여 山이여 봄이여  
내일은 목놓아 울지라도 지금은  
우리 앞에  
너 서러운 울음을 멈추어라.  
너 침울한 表情을 거두어라.  
넌 더욱 화려한 꽃잎을 뿌려라.

이와 같이 西芝 先生님은 그 당시 암흑기에 국민들에게 양심과 양식의 나팔로 호소하  
셨고 희망과 강한 정신력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西芝 先生님은 국민들이  
사회상을 냉철한 이성으로 볼 수 있게 저항시를 통해 길을 밝혀 주셨고 용기와 희망을 불  
어 넣으셨습니다.

西芝先生님은 1928년 3월 5일 경북 경산 용성면 245번지에서 태어나시어 1996년 8월 29일 享年 68세로 타계하신 교육자, 시인, 향토사가, 詩同人會「靑麥」·「詩林」창립회원, 한국시인·문인협회 회원, 각종 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였고, 「대구매일신문」에 ‘석굴암’을 연재하셨고, 「대구일보」에 ‘고난을 헤치고’란 신춘작품이 당선되었으며, ‘백신에 연구초’를 『경산문학』에 발표하는 등의 활동으로 1964년 향토문화상, 1989년 경상북도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西芝先生님의 松柏操를 기리는 시비가 1995년 4월 19일 국립4·19묘지에 ‘합장’ 시비가 제막되었고, 2005년 2월 28일 2·28기념중앙공원에 ‘아직은 謫念할 수 없는 까닭’이란 시비가 건립되었습니다.

마산에도 ‘江이여 山이여 봄이여 -떨어진 꽃봉오리를 생각하며-’란 시비가 건립되길 바라며, 선생님의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과 학생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대한민국의 民主主義 花香이 국토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2·28민주운동 50주년에 선생님께서 국민과 나라를 사랑한 그 위대한 정신을 우리들은 숭상하고 선생님께서 후대들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예지(叡智)를 주소서….

대구미래대학교 김약수 교수는 故 西芝先生님의 子舍로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감사와 기관지 『햇불』 편집위원장을 맡아 先大人 西芝先生님의 遺志를 받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햇불』지에 2·28민주운동을 주제로 한 ‘4·19의 불씨, 대구 2·28’과 ‘아버지와 검은 지프차’를 발표하는 등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위상을 고양시키고 崇祖정신이 투철한 垂範生活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2010년 7월 1일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安仁旭 謹識

## 西芝 金潤植 先生 遺旨

안 인 옥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西芝 金潤植 先生은 2·28대구학생의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 시간만에 2·28의 시 “아직은 諦念할 수 없는 까닭”을 창작하시어 1960년 3월 1일(火)자 「대구일보」 4면에 게재하셨다.

2·28, 3·15, 4·19의거 31주년을 맞은 해, 명덕로터리에 있던 “2·28대구학생의거 기념탑”을 교통 방해의 장애물로 몰아 헐리고 두류공원에 새로 세워져 그 준공식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불청객으로 참석하셨다.

선생님께서서는 “2·28대구학생의거는 막혔던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했고 체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다시 말해 우리 힘으로 독재정권과 맞싸울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을 준, 민족사에 크게 기록된 사건”이라고 우리들을 깨우쳐 주셨다.

선생님은 “한 시인으로서 2·28을 목격했고, 도피 중 서울서 4·19를 맞아 학생들의 대열을 따라 다니며 함께 고향치기도 했고, 총탄에 쓰러진 학생의 시신도 수습한 행운을 누린 사람이다.”라고 그 당시를 회고하셨다.

2·28민주운동 40주년 특별기념사업으로 발행한 “2·28민주운동사-Ⅲ. 기념사업회 관련 문헌”에 “2·28, 고이 흘러간 세월을 돌이켜 보며”란 글에서 2·28대구학생의거를 목격한 선생님께서 향촌동 “호수다방”에서 80여 행의 긴 시를 한 시간도 안 걸려 창작하여 백기만 선생님과 협의하여 「대구일보」 문화부장 이근우에게 부탁하여 1960. 3. 1. 「대구일보」에 게재함으로써 그 시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오늘을 사는 그 당시의 주역들과 국민과 학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신문에 게재한 “아직도 체념할 수 없는 까닭”(「대구일보」, 1960. 3. 1.)과 “江이여 山이여 봄이여”(「대구매일신문」, 1960. 4. 15.)란 抵抗詩 두 편이 示唆한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과 인생관을 기리기 위해 “西芝 金潤植 先生 松柏操讚”이란 글을 올렸다.

그 글과 관련해서 先生님의 강직한 절개(節概)와 추상(秋霜)같은 지조(志操)를 읽을 수 있는 글로서 1991년 발행한 경북중·고 제42회 졸업30주년 기념문집에 선생님께서 寄稿하신 글을 다음에 소개합니다.

1991년 발행한 경북중·고 제42회 졸업30주년 기념문집 기고

## 2·28, 고이 흘러간 세월을 돌이켜 보며

金潤植 詩人

歲月은 福된 손길로 공이 흘러가고

우리는 좋은 싫든 간에 1991년 올봄에 2·28, 3·15, 4·19의거 31주년을 맞게 된다.

이들 사건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조금씩이나마 역사적인 의의와 무게를 늘리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체감으로 느끼게 된 것은 “국가의 가치는 결국 국가를 조직하는 국민의 의식이다.”라고 한 밀(J. S. 영국의 철학자, 1806~1873)의 말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역사를 평가하는 국민의식이 그만큼 높아진 결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990년 2월, 명덕(明德)로터리에 있던 “2·28대구학생의거 기념탑”이 교통 방해의 장애물로 물려져 헐리고, 대신 두류공원(頭流公園)에 새로 세워지게 되어 그 준공식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불청객이나마 참석한 일이 있었다.

실은 명덕로터리의 기념탑이 헐리기 월 여전, 신정 직후의 몹시도 추웠던 어느 날, 석별의 정으로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어 사진작가 한 분을 모시고 갔다가 돌연 나타난 전경인가 의경인가들에게 호되게 쫓겨난 일이 있어 내키지 않았지만 30주년의 날에 새로 세워졌다는 탑의 모습을 보고 싶은 간절한 소원에서였다.

시골버스를 타고 말만 듣던 두류공원의 현장에 닿았을 오전 열시,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역사유적이고 뭐고간에 명분만 붙이면 헐어버리거나 없애버리는게 예사로운 우리의 실정에서 명덕로터리의 기념탑이 헐어지고 딴 곳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미 체념해버린 무던 나였지만 그럴 수가! 싶었다.

중장비에 마구 부서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TV화면을 보았을 때 침울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옆에서 함께 보고 있던 60이 넘는 아내는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다.

두류공원에 모여든 수백명의 군중 속에는 40대 후반의 50대 초반의 중년신사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2·28당시 경북, 대구, 사대부고, 대구상고, 경북여고생들이었음은 그들의 표정 등으로 읽을 수가 있었다.

안면 있는 신문사, 방송국 기자덕에 중년신사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기념사진도 찍고 몇 장의 명함도 받았다.

2·28 30주년!

3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다. 우리의 근대사에 찬연히 빛나는 2·28의 주역이었던 그 대구의 거리에서 자유를 부르짖었던 소년들이 불혹의 나이에 넘어서려 하고 있고 개중엔 지명(知命)의 나이에 이르고 있었으니 말이다.

대학생도 아닌 어린 고등학생들이 포악했던 독재 앞에, 감히 아무도 외치지 못했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리높이 부르고, 과감히 대구의 거리를 누빈 2·28대구학생의거! 여기에 용기를 얻어 일어난 4·19 이 역사창조의 주역들은 모두 자랑스런 얼굴로 그때의 감격, 감회, 보람을 되새기고 있었다.

“세월은 진실로 복된 손길인 양 고이 흘러갔구나”란 청마 유치환(柳致環)의 “육년 후”란 시 구절이 떠올랐다. 6년이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보낸 자리에서 그날을 기념하는 탑(塔)과 여기에 모인 중년의 주역들을 볼 때, 참으로 세월은 복되고 다정한 어머니의 손길로만 흘러갔음을 느끼게 했다.

## 2·28 大邱學生義學와 4·19革命

4·19의거는 학생주동으로 성사된 혁명으로 세계사에서도 찾기 힘든 강한 개성을 지닌 중요한 사실(史實)이다.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혁명은 세계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또한 혁명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그러하다.

서양사에서 크게 취급하고 있는 프랑스의 7월혁명(1830) 시의 “파리대학생”, 독일의 3월혁명(1932) 때의 “뮌헨대학생”의 투쟁들은, 그것을 혁명의 일각에 참여했을 정도의 학생운동이었지 우리의 4월 학생 혁명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이개 미미한 학생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사(民族史)에 4·19는 3·1운동과 더불어 불멸의 빛나는 사건인 것이다.

3·1운동은 일제에 강탈당한 제 나라를 되찾고 악독한 식민정책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필기한 민족운동이며, 4·19는 부패한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학생운동이었다.

이 두 사건은 일제식민지의 광복된 제 나라라는 시대와 환경의 차이는 있었으나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투쟁의 대상, 즉 상대성이다.

3·1운동은 세계 3대 또는 5대 군사 강국으로 자타가 공인, 아세아의 왕국을 노리고 있던 강대한 일본제국, 4·19는 6·25를 거쳐 북진 통일이 국시(國是)인 세계 유수의 군사, 경찰정권에다 노망기든 독재자의 종신 집권을 노린 이정권(李政權)이라는 강대한 상대.

다음으론 자기에게 무조건 순종 않은 자는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몰아 생명의 안위는 물론 기초적인 생존권마저 약탈 제거당하는 강압적 공포정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정권은 그에게 반대하는 자는 모조리 해국자(害國者)가 아니면 빨갱이의 울가미를 덮어 씌워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신원조회를 하고, 시골마을의 반장마저 못하게 하는 철두철미한 공갈공포형의 독재정권이었다.

셋째의 공통성은 졸당(卒黨)들로 하여 전국을 장악케 했었다. 일제는 많은 친일파(親日派)로 하여 모든 분야를 장악케 하고 방방곡곡 그 지역의 유지로 얹혀 조선인의 수탈과 탄압의 앞잡이로 삼았고, 그들을 방패로 민족말살을 꾀했고.

이정권(李政權)은 지난날의 반역 친일도배(親日徒輩)를 수하로 하고, 일군(日軍) 만군(萬軍) 출신에게 군부를 장악케 하여 그들을 손아귀에 넣고, 작은 미끼에도 쉬이 걸려든 아부배들로 하여 안하무인 행패를 부리게 하고, 이기봉, 이강석(李康石)으로 잇는 이승만 독재왕국 건설을 꾀했었다.

3·1운동과 4·19는 시대적인 배경은 달랐어도 현실성에선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괴테는 “혁명은 결코 국민의 죄가 아니다. 집권자의 죄악이 스스로 낳은 산물이다.”라고 갈파했었다.

국민의 공감체도 없이 오직 정권 갈취를 목적으로 한 후진국들의 쿠데타를 보아 온 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혁명은 국민 대다수의 공감체 아래 국민 대다수의 참여에서 이뤄지는 거라야 혁명이 혁명으로 선의의 평가를 받게 되는 법이다.

3·1운동에 보였던 온 민족의 봉기의거에서의 투쟁, 4·19는 그 주체가 학생이었을 뿐, 온 국민의 공명과 참여 아래 성공한 혁명이다.

자유 나무는 폭군이 피를 뿌릴 때만 이뤄진다는 말처럼 3·1운동, 4·19 공히 폭군에 의해 많은 피를 뿌렸지만 독립 쟁취, 조국 광복을 목표로 한 3·1운동은 민족정신, 반일제항쟁이란 점에선 성공했으나 목표 쟁취에는 실패하여 위대한 민족의거로 끝나고 4·19는 독재정권 타도란 목적으로 성공시킨 혁명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어떤 명목 목표 아래의 대중, 민중 운동인들, 그것이 명분이 뚜렷하고 많은 피를 뿌렸다 해서도 국민 전체의 공명공감체를 상실하고, 국민 절대다수의 호응이 없는 「사건」이면 국민들로부터 자칫 「폭동」의 누명을 덮어 쓰고, 제들이 아무리 의거라고 부르짖어도 귀기울여 주지



않는다.

프랑스의 혁명가 제프슨은 “폭군에 대한 저항은 하나님의 복종인 것이다.”라고 갈파했다.

폭군의 폭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제프슨의 말을 기독교인이 아닌 나이지만, 해마다 맞는 2·28, 4·19의 날엔 으레히 되짚어 본다.

2·28대구학생의거는 3·15마산의거와 4·19의 모체이다, 2·28이 없었던들 3·15와 4·19가 없었을지 모른다.

2·28대구학생의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 사건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선 1950년대 말기와 1960년 초의 시대적인 배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육 한 마디로 국가원수모독죄로 잡혀 똥이 눅도록 고문당한 뒤 징역 몇 년을 살아야 하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국회의원 그것도 40여 명이나 무더기로 헌병대가 납치 죽치고,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안이 1표 부족을 4사 5입으로 통과시키고, 반정권이 곧 반동분자 빨갱이로 몰리고, 백주의 테로는 테로가 아니고, 부모형제를 비롯 근처에 그런 자가 있으면 면서기 하나 못해먹고, 실력보다 뺨이 앞서고, 미관말직이나마 제자리에 앉아 입에 풀칠하려면 짝소리 않고 무조건 충성을 바쳐야 하는 그런 공포시대였다.

민족의 양식인 학자는 학자대로, 민족의 지성인 시인은 시인대로 오로지 몸조심 입조심에 조심조심을 해야 했었다. 그들 중에는 독재에게 아용구용하는 자가 있기도 한 그런 암담한 암흑의 시대이었다.

이런 시대에 감히 뉘 있어 그 세력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겠는가, 암담한 가슴을 안고 대부분의 국민은 국민총생산 1인당 100달러 미만의 가난과 신음, 체념의 늪에 빠지고 있을 때, 2·28대구학생의거의 거사는 체념의 가슴에 솟아오른 샘물로 쾌재를 부르게 했던 것이다.

대구의 2·28학생의거는 대학생도 아닌 어린 고등학생들의 봉기로 감히 그런 공포시대에 과감히 일어섰다는 데에 그 진면목이 있는 것이다.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무모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8·15광복 이후의 최대사건이었다.

국내 언론은 물론, 3·15선거를 취재하러 입국한 많은 외국 특파원들이 대서특필했다.

여늬 때 같으면, 이놈들! 모조리 중치고 그 주동자는 엄벌에 처하고, 그 보호자까지 모가지를 날려 버리겠으나 선거를 앞둔 민심의 동요가 두려워 일단은 훈방으로 덮어두었다. 그러나 3·15선거 후에 보자고 한 속셈이었다.

만일 3·15마산사건, 이어 4·19가 발발하지 않았던들 뒷날 2·28의 주동학생들은 호된 변을 당했을 것이다.

나는 가끔 내대로의 추리를 해 볼 때가 있다. 2·28이 없었던들, 마산항쟁, 나아가 4·19가 있었을 것인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28은 막혔던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했고, 체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다시 말해 우리 힘으로 독재정권과 맞싸울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을 준, 민족사에 크게 기록된 사건이라고….

### 눈물을 흘리며 한 시간만에 2·28의 시,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나는 한 시인으로서 2·28을 목격했고, 도피 중 서울서 4·19를 맞아 학생들의 대열을 따라 다니며 함께 고함치기도 했고, 총탄에 쓰러진 학생의 시신도 수습한 행운을 누린 사람이다.

1958년 겨울, 자유당정권과 그 졸당들의 등살에 못이겨 청도군 운문면 서지동 공수마을 앞 하천가에 임야로 남아있던 1만여 평. 우리 소유의 땅을 당시로선 구하기 힘든 불도저를 동원, 정지하고 제방을 쌓고 하여 1959년 이른 봄 어린 것들을 거느리고 이사를 했다.

운문산하 산동천(山東川)을 낀 가난에 찌들린 공수마을은 그래도 산자수명, 나같은 도피 문학도에겐 그럴 수 없이 좋은 곳이었다. 그전까지 쓰던 몇 개의 아호(雅號)를 모조리 버리고 서지(西芝)라고 고쳤고 지금도 그 아호를 쓰고 있다. 세상이 바뀔 때까지 이 아름다운 산수를 벗하여 농사지으면서 살리라 마음 먹었다.

우순풍조하여 여섯 말이나 씨앗을 뿌린 땅콩과 1천여 평의 벼는 대풍을 이뤘다. 노동의 농민의 농촌시 “生活記”를 비롯 많은 “농민시”를 썼고, 신문잡지에 연재물로 “山林日記” 또는 “山林雜記”, “山林通信” 등 많은 잡문도 썼었다.

그러나 1959년 9월 15일, 추석날에 급습한 사라호 태풍과 그 한달 뒤의 어느날 한 마을이 전소하는 대 화재로 십여 년 수집한 일제 때 발간된 우리의 문예지, 동인지, 시집을 비롯한 서책 수백권과 원고, 일기장 등 일체를 태워버렸다.

그런 속에서도 비롯 완속은 못했으나 2톤 트럭 가득히 땅콩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나는 아내와 몇 일 걸려 깐 알땅콩 두 포대를 팔러 1960년 2월 28일 대구로 나갔다. 아버님의 무명 한복과 낡은 코트를 빌려 입고 하루 4왕복의 낮버스를 타고 대구 방천시장 앞에 내렸다.

두 사람의 지게꾼을 사서 염매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삼덕우체국 쪽에서 달려와서는 중앙통 쪽으로 달려가는 고등학생들의 데모대를 만났다.

내 기억으로는 1시가 넘었을 시간이다. 그러나 이 돌진의 대열이 반독재에 항쟁하는 대열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느 세상인데, 감히 하는 기성 개념에서였다.

개중에는 주먹으로 하늘을 치며 뭐라고 고함치는 학생도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외침인지 알아듣지를 못했다.

저 어린 고등학생들이 참아 “자유를 달라!”, “독재정권 물러가라!”라고 외칠 줄이야.

나는 중앙파출소 앞에서 이 대열의 실체를 파악했었다. 비록 대열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길가에 늘어선 시민들의 뺨아내는 소리와 표정들.

나는 한숨으로 달려갔다. 경북도청(지금의 중앙공원) 입구에서 도청으로 돌입하려다 경찰관의 제지와 거친 진압에 흠어지는 학생들, 길바닥에 널려있는 책들, 거칠게 잡혀가는 학생들….

나는 주먹을 쥐고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시골의 농군으로 살아서는 불순한 반정부 선동자요. 비판적인 글만 쓰는 참여문인으로 저놈 언제가는 혼줄을 내야지! 언제 빨갱이로 몰려갈지 모르는 나, 그들을 피해 운문산 서지마을로 갔다가 사라호와 화재로 파산당하고, 악만 남고 독기찬 나는 이 어린 학생들의 과감하고 거룩한 의거 앞에 자성을 잃을 정도로 감격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땅콩을 팔아, 거의 헐벗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옷가지를 사야 한다는 절실했던 용무도 잊어버렸고 그깟 땅콩같은 건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 조금도 아까울게 없었다.

오후 2시 넘어 도청과 가까운 향촌동의 “호수다방”으로 갔다. 호수 다방은 그 당시 “서라벌다방”과 함께 문인, 화가, 음악가, 교수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백기만(白基萬) 시인과 문필가이자 서지가(書誌家)인 이원식(李元式) 선생, 경북대학교의 최영호 선생, 한 자리에 앉아서 감격과 흥분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다방 안주인에게 종이와 연필을 빌렸다.

‘설령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먹장같은 구름이 해를 가리어 있다쳐도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은  
 앓고 있는 하늘 구름장 위에서  
 우리들의 태양이 작열하고 있기 때문’

이렇게 시작한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란 80여 행 비교적 긴 시를 한 시간도 안 걸려 단숨에 썼다.

그리곤 백기만 선생에게 보여 이 시를 어디에 발표해야겠는데, 하고 수의했다. 이 졸속한 시를 대한 세 분 모두가 이번엔 이 시로 하여금 흥분했었다.

당시의 상황으론 반독재에 대한 항거 데모도 상상 못했지만 이런 류의 시를 쓰는 시인도 없었고, 뼈라를 만들어 야밤에 뿌리지 않는 한, 감히 발표해 줄 매개체도 없었다.

나는 「대구일보」로 전화를 걸었다. 이 신문은 철저한 이 정권의 어용신문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몇 분의 반골기자들이 있어 나오는 뜻을 통하고 있었다.

문화부장 이근우(李根雨)를 불렀다. 그는 나의 시를 보고는 나의 손을 굳게 잡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히 내겠다고 약속하기가 바쁘게 차 한 잔도 마시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는 그 길로 대봉동의 청마(靑馬) 유치환 선생을 찾아가 내 시를 보이고 “인간이란 기계”란 원고를 밤 늦게까지 기다려 받고는 거기서 멀잖은 신석필(申錫弼) 화백에게 걸을 받아 다음날 2월 29일, 3월 1일자로 낸 것이다.

이 글들로 넣기 위해 이근우 문화부장 이외에 이호래(李浩來), 박성규(朴性圭) 기자들의 교묘한 작전으로 인쇄까지 넘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청마 선생, 이근우 형은 작고했으나 모두 7순이 눈앞인 이호래, 박성규, 신석필 선생과는 오늘도 형제의 의로 지내고 있다.

2·28의 시로 하여 나의 거동이 차츰 어려워지고 3·15마산사건에 쓴 “江이여 山이여 봄이여” (4월 15일자 每日新聞)가 겹쳐 나는 서울로 피신을 했다.

피신 몇 일만에 국회의사당 앞의 4·18고대학생 연좌데모와 이어 4·19를 체험하고 1960년 4월 19일, 이제는 마음편고 살 수 있는 내 고향 경산군 용성의 산촌으로 돌아와 이날까지 땅을 뒤지는 농군으로 살아왔다. 이는 오로지 2·28대구 남녀학생들이 하늘 높이 올린 봉화와, 4·19에 학생들이 뿌린 고귀한 피의 덕분이 아닌가.

2·28, 만 30년이 넘었고 곧 4·19혁명 31주년을 맞는다. 나도 60대 중반에서 인생의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다. 그때의 어린 학생들이 모두 50대 지명(知命)의 장년이다.

어쨌든 세월은 복된 손길로 흘러갔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2·28 그때에 흘린 눈물과 감격, 4·19 소공동 조선히otel 건너 육군방첩대 앞에서 쓰러진 서울대 미대생의 시체를 껴안고 우러러 하늘을 향해 울어댔던 그때의 일들을 고이 가슴에 안고 살아 왔었다.

이승에 살아 시를 쓰는 시인이 되어 한국근대사뿐 아니라 우리의 청사(靑史)에 길이 빛날 대사건에, 비록 보잘 것 없는 글이나마 동참했다는 자량과 보람을 안고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卍

## “2·28민주운동” 정신 특강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숙원 사업으로 계획 추진 중인 “2·28민주운동”에 대한 학생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4월 23일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실에서 교육국 관계관과 본회와 협의를 거쳐 2010년부터 “2·28민주운동” 관련 교과 선생과 교감·교장선생을 대상으로 연수키로 하였는데 지난 5월 31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등교감과 전문직 직무연수”시에 안인욱 의장이 “2·28민주운동”에 관한 특강을 하였다.

특강은 “2·28민주운동” 동영상(22분 방영)과 다음의 연수 자료로 강의하여 “2·28민주운동”에 대하여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켜 학생 교육에 기여토록 하였다.

< 중등교감·전문직 연수 특강 자료 >

#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안 인 욱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 I. 들어가는 말

1960년 2월 28일 2·28민주운동은 불의와 부정에 맞서 항거하고 유린당한 인권과 자유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대구의 고등학교 1·2학년생들이 목숨을 걸고 분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효시임에도 불구하고 2·28민주운동이 발화된 지 41년째인 2001년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었으나, 제2조 민주화운동 정의에 2·28민주운동이 누락되었다.

2009년 12월 29일 이해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에 통과되고 2010년 2월 4일 제2조 중 “3·15의거,”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로 개정된 법이 법률 제10007호로 공포되었다.

본 사업회는 국채보상운동정신과 2·28민주운동정신을 대구·경북인의 정신으로 승화·발전시키고 대구·경북인의 자긍심으로 승상되어야 하며, “2·28문화존”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대로”를 “2·28대로”로 “지하철 1·3호선 명덕역명”을 “2·28역”으로 변경하고 명덕네거리 부근에 “2·28기념회관”을 건립하고 “2·28기념중앙공원”과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2·28문화존” 조성이 시급하다.

본고는 2·28민주운동의 배경, 전개과정, 역사적 의의, 현대적 계승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II. 2·28민주운동의 배경

### 1. 역사적 배경

- 이승만 정부의 성립과 독재정치
- 1960년 정·부통령 선거

### 2. 경제적 배경

- 국민 경제 수립의 실패
- 경제적 불황

### 3. 지역적 배경

- 일제하 대구의 학생독립운동
- 대구시민의 정치적 성향
  - 대구시민의 의식구조
  - 정치적 동향과 야당도시



## III. 2·28민주운동의 전개 과정

1. 일요일 등교 지시
2. 운동의 계획
3. 학교별 전개 과정

2·28민주운동은 대구 시내에 소재한 8개 공립고등학교의 1·2학년생들이 주도하였다.

- 경북고등학교
- 대구고등학교
-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경북여고, 대구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대구상고

4. 당국의 대응

- 좌익개입론
- 과잉충성론
- 민주당 배후론

5. 전국적인 확산 : 서울, 대전, 부산, 마산 등.

IV. 4·19혁명으로의 계승

- 4·19혁명의 전개 과정
- 4·19혁명의 결과 및 영향
  - 학원민주화 운동의 전개
  - 사회·정치 개혁운동의 전개
  -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전개




V.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의

- 이념의 대자성
- 주체의 조직성
- 투쟁의 지속성

VI. 2·28민주운동의 현대적 계승

1. 기념사업회의 결성 및 활동
2. 기념물 조성

대구에서 2·28민주운동을 기리는 기념물로는 두류공원에 2·28기념탑과 경북고, 대구고, 경북대사대부고 교정에 세워진 기념조형물이 있다. 또한 2·28기념중앙공원을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조성하였다.

- 2·28기념탑
- 경북고등학교 2·28기념 조각동산과 2·28조각물
- 대구고등학교 대고탑
-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28기념조형물
- 2·28기념중앙공원 

## 2·28민주운동 교육용 교재 발간 언론 보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28민주운동 50주년을 기념해서 현재 초등학교와 고교의 한국 근대사에서 2·28민주운동을 가르치고 있으나 교사들이 자료와 관련 정보를 갖추기가 어려움을 인식하고 “2·28 민주운동 교육용 교재”를 발간했다.

대구지역 향토연구회 회원이 집필한 이 책자는 “2·28민주운동의 배경, 전개 과정, 4·19혁명으로의 계승, 역사적 의의, 현대적 계승,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회는 교재 1만5천부를 발간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 유관기관, 대구시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여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교재 발간의 의의에 관한 언론 보도들 보면 다음과 같다.

연합  
뉴스

## 2·28민주운동 교육용 교재 발간

2010-04-29 14:13 송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구 2·28민주운동에 관한 교육용 교재가 발간됐다.

29일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와 고교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2·28 민주운동을 가르치고 있으나 교사들이 관련 자료와 지식을 갖추기가 어려워 민주운동 50주년인 올해를 기해 교재를 펴냈다.

대구지역 향토사연구회 회원들이 집필하고 편집했는데 2·28민주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4·19혁명으로 계승, 역사적 의의, 현대적 계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업회는 교재 1만5천부를 발행해 대구시·경북도 교육청과 대구시내 초·중·고교에 배포하고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되도록 국사,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 교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인욱 기념사업회 공동의장은 “2·28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의 고교생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유당 정부와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의 효시”라며 “작년 말 법에서 인정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된 만큼 미래의 주역들이 정확히 알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구  
신문

대구 2·28민주운동 교재 발간

입력시간 : 2010-04-29 21:46:48



앞으로 지역 학생들은 대구에서 시작,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2·28민주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인 2·28민주운동에 관한 교육용 교재(사진)가 발간됐기 때문이다.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28민주운동 50주년을 맞아 교육교재 1만5천여 부와 CD를 발간, 대구와 경북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대구지역 향토사연구회 회원이 집필한 이 교재는 2·28민주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각종 문헌과 사진자료 등을 담아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업회에서 제공한 2·28교재를 사회 및 한국 근·현대사 수업에 적극 활용, 학생들이 대구에서 일어난 민주운동을 쉽게 이해하고 대구의 자랑스러운 만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회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수업 중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덕, 국사, 사회, 한국 근·현대사 교사를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인욱 기념사업회 공동의장은 “2·28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의 고교생들이 민주화 수호를 위해 정부와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의 효시”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대구의 민주운동을 정확히 알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jhjh@idaegu.co.kr

TBC  
(대구방송)

2·28민주화운동 교재 학교 배포

2010. 4. 30. 아침뉴스(07시:27분)

2·28 교재 수업에 활용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대구민주화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교재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대구교육청 향토사연구회가 집필한 2·28민주운동 교재에는 운동의 배경과 역사적 의의 등이 담겨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돼 수업시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영남  
일보

[삽화가 있는 풍경]

2·28민주운동 교재 발간

2010-04-30 07:30:39 입력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50주년을 기념해 2·28민주운동 교육용 교재를 발간했다. 사업회는 29일 “2·28민주운동이 초등학교와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단원에서 나오고 있으나, 교사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전문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재 발간 배경을 밝혔다. 2·28민주운동의 배경 및 전개, 역사적 의의, 4·19혁명으로의 계승 과정 등을 담은 이 교재는 1만5천부가 발행됐다. 사업회는 대구시·경북도교육청과 시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에 교재와 관련 CD를 배포하는 한편 도덕, 국사, 사회, 한국 근·현대사 등 관련 교과 교사를 상대로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동아  
일보

2·28민주운동 교재 발간

2010-05-04 06:12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고교생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2·28민주운동’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재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이 교재를 1만5000부 발간해 대구 지역 모든 초중고교를 비롯해 16개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146쪽 분량으로 만든 ‘2·28민주운동’ (사진)은 이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4·19혁명으로의 계승, 역사적 의의, 현대적 계승 등으로 구성됐다. 부록으로는 기념사업회 구성과 기념탑 비문, 대구시 관련 조례, 국사 등 과목별 수업안 등을 담았다. 또 사진자료 30여 점과 관련 신문기사 20여 건을 실어 2·28민주운동의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재 발간에는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28명이 참여했다. 집필은 학남고 김학수 교사 등 현직 교사 8명이 맡았다. 기념사업회 안인욱 공동의장(68)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학생민주운동의 뜻을 지금의 청소년들이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중앙  
일보

『2·28민주운동』 발간

2010. 05. 04 00:17 입력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교육용 교재 『2·28민주운동』을 발간했다. 기념사업회는 2·28민주화운동 50주년을 맞아 초·중·고교에서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교사를 위해 이 교재를 만들었다. 시교육청 향토사연구회 회원이 집필했으며 운동의 배경, 전개 과정, 역사적 의의 등을 담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교재 1만5000권을 최근 대구시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대구  
MBC

2·28민주운동 관련 교재 발간

김철우 기자 2010-05-03 15:04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구 2·28민주운동에 관한 교육용 교재가 발간됐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와 고교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2·28민주운동을 가르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한 교육을 위해 민주운동 50주년인 올해 교재를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역 향토사연구회 회원들이 집필한 교재는 2·28민주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4·19혁명으로 계승, 역사적 의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회는 교재 1만 5천 부를 발행해 대구시, 경상북도 교육청과 대구시내 초·중·고교에 배포하고 학교에서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국사와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 교사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표지 작품



양(오일, 캔버스 15호, 2009년)

작가 : 문상직(MOON,SANG-JIG)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동교대학원 졸업  
개인전 24회  
2005 대판ART FAIR(Osaka ATC)  
EGYPT 수교10주년 초대전(Cairo)  
2006 동북아시아전(일본북구주 시립미술관, 중국민족문화관)  
2006 한국 인도 현대미술교류전(LALIT Kala Akadmi)  
2006 THenew yearproiect Oni yes(공평아트센터)  
2006 인사동 현대미술축제(문화지구 4주년기념, 인사Art센터)  
2007 한국-터키 수교 50주년기념 국제미술전시회(터키 이스탄불 올디스왕국전시관)  
2009 한-몽골 수교 19주년기념 초대전)  
남·북 미술교류 추진위원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심사위원 역임  
금복문화예술상, 대구시초대작가상, 미술세계작가상





## 제10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시상식

2010년 7월 9일 오후 4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제10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산문, 운문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올해는 운문을 공모했는데 초·중·고 학생 925명이 응모, 경북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선미 학생이 대구광역시장이 수여하는 대상을 받는 등 260명의 학생들이 대구광역시교육감상, 대구지방보훈청장상, 2·28공동의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안인욱 2·28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28민주운동은 대구의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했던 의거이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횃불이 되어 3·15, 4·19혁명으로 이어져 마침내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피게 했던 정의의 발현이라고 말하고 오늘의 글짓기 행사는 문학적 글을 뛰어넘어 2·28의거의 역사를 쓴 것이고, 그 정신을 이어가야만 할 주역들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민주정신을 더 굳건히 다지고 이끌어갈 미래의 2·28 주역으로서 책무가 큼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 학생·교사·학교장·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동기 대구광역시교육감, 김선대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장, 한기엽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시상을 하였고, 오명옥 고문, 백진호 상임부의장, 권국현 부의장, 양성호, 김명환, 박원범 이사 등이 수상자들을 격려해 주었다. ▮



우동기 대구광역시교육감 시상



김선대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장 시상



김선미 대상작품 낭송

**제10회 2·28민주운동 글짓기(운문) 공모 입상자 명단(2010)**

■ 대상 - 대구광역시장상

김선미      경북여자고등학교 3-1      흥터

■ 금상 - 대구광역시장상

박서연	대구동평초등학교 5-1	2·28민주 기념비
노연정	대구봉덕초등학교 4-5	바람과 구름
정현진	대구파호초등학교 4-3	처음 알게 된 일
박소미	대구황금초등학교 4-1	민주화 꽃
박소연	북대구초등학교 4-1	민주주의의 불씨가 되어
함동현	북대구초등학교 4-3	동성로 밝은 거리
한여은	강북중학교 1-8	내가 활짝 피워 줄게
최예린	대구영신중학교 3-1	불꽃
이진우	서재중학교 3-2	독재와 학생
김종우	경북고등학교 2-6	햇불
장은미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2-6	새
손민수	능인고등학교 2-7	불꽃
임현동	대구고등학교 3-2	메아리
이나영	대구상원고등학교 3학년	민주 햇불의 선율
박지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5	햇불

■ 금상 - 대구광역시교육감상

남혜진	대구대청초등학교 6-11	사랑하는 오빠들이여!!
여승윤	대구범일초등학교 4-4	위대한 유산 2·28민주운동
신지윤	대구상인초등학교 5-1	우리 작은 민주사회
김채은	강북중학교 1-12	50여 년전 영혼의 거리에서
윤 건	대구영신중학교 2-6	2월 28일
이주은	칠곡중학교 3-8	불꽃놀이
김 민	경명여자고등학교 3-7	2·28고함
안창주	경북고등학교 2-6	木子木規
이재민	대구고등학교 2-12	2010년이 1960년에게

■ 은상 - 대구지방보훈청장상

김민주 대구동신초등학교 6-4  
 이영진 대구상인초등학교 4-3  
 정재환 대구신성초등학교 4-2  
 서수림 대구아양초등학교 6-4  
 최성민 대구육포초등학교 5-2  
 정예진 대구울하초등학교 4-3  
 김민아 대구황금초등학교 4-2  
 김윤환 대구황금초등학교 6-7  
 최준 대구효동초등학교 4-1  
 하지윤 북대구초등학교 5-2  
 홍민지 대구동도중학교 3-8  
 홍은아 대구영신중학교 1-3  
 이슬비 서재중학교 3-7  
 권순성 칠곡중학교 3-2  
 이화수 칠곡중학교 3-5  
 김혜영 경명여자고등학교 2-4  
 성현도 경북고등학교 2-6  
 이다영 경북여자고등학교 3-8  
 김진홍 능인고등학교 2-5  
 조민수 능인고등학교 2-5  
 김경윤 대구고등학교 3-5  
 김동현 대구고등학교 3-7  
 이신혜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6  
 손나래 대구외국어고등학교 3-4  
 박지원 원화여자고등학교 2-3

대구에서 일어난 고귀한 불씨  
 언니, 오빠들 자랑스럽습니다  
 2·28민주운동  
 2·28민주의 꽃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받겠습니다.  
 2·28학생의거  
 2·28 이야기  
 이승만의 2·28날  
 선홍색 부르짖음  
 그날의 함성소리  
 꺼지지 않는 불꽃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일어나는 우리들  
 친구야, 같이 가자  
 자유를 위해, 정의를 위해  
 너  
 2·28운동 기념시  
 갈증  
 연어  
 새싹  
 어린 새의 외침  
 2·28민주운동이 이루어낸 심장  
 어린 바람  
 초동(初動, 初冬)  
 2월에 뿌린 씨앗

■ 은상 - 2·28공동의장상

장정윤 대구동평초등학교 4-2  
 나미연 대구육포초등학교 5-2  
 엄다슬 대구황금초등학교 5-4  
 나지혜 대구황금초등학교 6-5  
 유신혜 북대구초등학교 6-5  
 김윤아 감삼중학교 3-1  
 김연주 경일중학교 2-6  
 장지철 대구영신중학교 2-8

그날의 뜻을 되새기며  
 그 날, 2월 28일  
 민주주의 밑거름이 되립니다.  
 자랑스런 대구의 역사  
 누구덕분일까  
 영원한 불꽃  
 민주주의의 꽃  
 2·28, 그들 마음속의 햇불

이지민	서재중학교 3-2	우리의 마음
송혜린	서재중학교 3-6	새파란 그늘 아래
이아영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2-6	그대는
이동은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3-9	붉은 심장
서승현	다사고등학교 1-4	효혈
손영은	대구고등학교 1-10	빼꾸기의 울음
오대준	대구고등학교 2-1	2월의 생명
김창엽	대구고등학교 2-11	근성
이상준	대구고등학교 3-6	2·28정신
이혜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1	2월부터 시작된 봄
최윤지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6	바람의 향기
김영란	대진고등학교 1-9	고로쇠나무

동상 - 2·28공동의장상

김민경	대구금계초등학교 4-2	이제야 알게 된 2·28민주운동
김희정	대구남산초등학교 4-6	자유
김지수	대구대청초등학교 6-6	2·28민주운동
이상현	대구대청초등학교 6-11	2·28기념공원
서현지	대구동평초등학교 4-4	송고한 희생정신, 2·28민주항쟁
주태민	대구동평초등학교 5-1	부정 앞에서 2월 28일
박진영	대구동평초등학교 5-6	2·28민주화운동
손승아	대구동평초등학교 6-1	2·28민주운동
권경원	대구봉덕초등학교 4-1	민주주의의 출발
김희진	대구상인초등학교 5-5	자유를 지켰네
김아름	대구상인초등학교 6-3	2·28운동
박주연	대구상인초등학교 6-4	우리들의 용기
이정민	대구상인초등학교 6-7	2·28운동
황효정	대구신성초등학교 4-3	2·28민주운동
조재영	대구율하초등학교 5-1	정의롭던 그들
이은영	대구중앙초등학교 6-7	2·28민주운동이여, 빛나라!
이수현	대구황금초등학교 4-2	2·28이 뭘까?
최화랑	대구황금초등학교 5-1	대구의 빛나는 작은 영웅들
황채영	대구황금초등학교 5-3	가슴에 품은 자유
김수민	대구황금초등학교 5-4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은 핀다.
김인경	대구황금초등학교 5-6	자기 스스로
이동현	대구황금초등학교 6-3	2·28민주화 운동
한고운	대구황금초등학교 6-7	2·28 대구학생 민주운동



한승담 북대구초등학교 4-2  
 구지민 북대구초등학교 5-7  
 엄효정 감삼중학교 3-3  
 오유빈 대구영신중학교 1-3  
 하혜지 대구영신중학교 1-3  
 김효경 달성중학교 2-9  
 정종욱 서재중학교 2-1  
 김태희 서재중학교 2-2  
 안상준 서재중학교 2-2  
 김민주 서재중학교 2-5  
 구슬기 서재중학교 3-3  
 김혜진 서재중학교 3-3  
 김재윤 경북고등학교 2-6  
 마규태 경북고등학교 2-6  
 안현태 경북고등학교 2-6  
 이기봉 경북고등학교 2-6  
 박가은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1-12  
 김 별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1-15  
 김세준 경신고등학교 2-7  
 이종현 능인고등학교 1-2  
 권두현 능인고등학교 1-12  
 하지후 능인고등학교 2-1  
 김기호 능인고등학교 2-6  
 최상준 대구고등학교 1-12  
 전민호 대구고등학교 2-3  
 정동현 대구고등학교 2-3  
 김기윤 대구고등학교 2-5  
 박용혁 대구고등학교 2-6  
 김민엽 대구고등학교 2-11  
 김성균 대구고등학교 2-12  
 김인수 대구고등학교 2-12  
 강민철 대구고등학교 3-1  
 김현수 대구여자고등학교 2-2  
 시지연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2  
 김태창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3  
 조 희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3  
 김지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5  
 이재하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6

우리는 하나  
 학생들의 외침  
 빛을 향한 갈망  
 기도  
 새싹들의 기지개  
 2·28기념탑을 보며  
 겨울의 끝, 봄의 시작  
 다시 기억하자, 다시 되살리자!  
 이제는 외치고 싶다  
 참을 만큼 참았다.  
 기억하겠습니다  
 거리의 꽃  
 그분들은 자랑스러운 경고인입니다  
 빛  
 개미와 인간  
 물결  
 코끼리와 생쥐  
 무지개 희망  
 영원히 기억하며  
 해  
 봄을 부르는 새싹  
 나무  
 2월의 나비  
 힘 썬 호랑이와 대항하는 토끼  
 새들의 저항  
 뻘에로와 관객  
 자유  
 자유로운 새  
 할머니의 노래  
 문제  
 함성  
 2·28운동  
 그대여, 그때를 잊었는가  
 눈 속의 꽃  
 바다의 울렁임  
 어머니  
 개미 성  
 이른 봄꽃

허재호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3	꽃맹아리
정경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6	씨앗 뿌린 정거장
백다솜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1-14	그 날의 외침!
전혜영	정화여자고등학교 1-14	큰아빠, 아빠 그리고 나

■ 입선 - 2·28공동의장상

신수인	대구금계초등학교 5-1	그들의 빛
이은주	대구금계초등학교 6-1	2·28민주운동
박신혜	대구남산초등학교 4-6	뜨거운 함성
정은주	대구동평초등학교 5-3	정의의 등불
최자윤	대구동평초등학교 5-10	푸른 바다를 위해
최수민	대구동평초등학교 6-1	잊을 수 없는 아픔
공혜란	대구동평초등학교 6-4	2·28민주운동
김신범	대구동평초등학교 6-4	그날의 함성
김혜림	대구동평초등학교 6-4	2·28민주운동
박준현	대구동평초등학교 6-4	2·28대구학생의거운동
서민지	대구동평초등학교 6-4	자유의 외침
이상협	대구동평초등학교 6-4	2·28학생들의 반란
김유진	대구동평초등학교 6-6	영원한 대구시민들의 활약
안지현	대구봉덕초등학교 4-6	세가지 선물
권영채	대구봉덕초등학교 5-3	2·28민주운동
최영윤	대구상인초등학교 4-6	2·28 젊음의 소리
양재원	대구상인초등학교 5-2	힘든 싸움 2·28운동
신지훈	대구상인초등학교 5-4	2·28운동
이지은	대구상인초등학교 5-6	민주운동
최유선	대구상인초등학교 5-6	2·28운동
한승민	대구상인초등학교 5-7	2·28기념
김수빈	대구신성초등학교 4-2	2·28민주운동 동시
남정욱	대구신성초등학교 5-1	2·28! 다시 되새기자!
조승환	대구신성초등학교 5-1	2·28민주운동을 되새기며
진윤정	대구신성초등학교 5-2	자생적 시위 2·28민주운동
정주미	대구율하초등학교 4-1	2·28민주화운동
채수빈	대구율하초등학교 4-1	2·28운동
김예지	대구율하초등학교 6-2	2·28민주운동
이수란	대구율하초등학교 6-2	2·28민주운동
차우섭	대구태전초등학교 5-1	불꽃 같은 마음하나 도화선되어
김종한	대구황금초등학교 4-1	잊혀가는 대구민주화운동

박영제	대구황금초등학교 4-3	2·28민주운동
이영입	대구황금초등학교 4-4	2·28민주화운동
채아연	대구황금초등학교 4-4	아...슬픈 이 현실
김태완	대구황금초등학교 4-5	2·28대구학생민주운동
여은지	대구황금초등학교 4-6	2·28민주화운동
이서영	대구황금초등학교 4-6	민주화의 꽃
손지우	대구황금초등학교 5-1	2·28민주화운동
권정현	대구황금초등학교 5-2	꿈을 향한 외침
김재원	대구황금초등학교 5-2	자유와 민주
백장미	대구황금초등학교 5-3	간절한 외침
김도현	대구황금초등학교 6-1	2·28민주화운동
김정현	대구황금초등학교 6-1	대구 학생의 강렬한 정신, 2·28민주화운동
강민형	대구황금초등학교 6-2	자랑스런 언니 오빠들
김은령	대구황금초등학교 6-2	2·28민주화운동
이다건	북대구초등학교 4-5	2월의 힘찬 함성
전수빈	북대구초등학교 4-6	멋진 용기
김민성	북대구초등학교 5-8	자랑스러운 고등학생들
김가영	북대구초등학교 6-3	바른 사회
최지아	북대구초등학교 6-6	민주화의 열매
이지수	강북중학교 1-5	들꽃
김나송	감삼중학교 3-3	붉은 강 건너에는
이예지	감삼중학교 3-4	유리구슬
여의주	대구동중학교 2-11	들꽃의 의미
김연아	대구영신중학교 1-3	꽃비
이현비	대구영신중학교 1-4	대구의 정신을 모아
유창호	대구영신중학교 2-7	그날
류채훈	대구영신중학교 3-1	우리는 하나 되어
손이은	대구영신중학교 3-2	제비의 비상
김지연	서재중학교 2-4	우리들의 영웅
하민지	서재중학교 3-2	2·28공원에서
김희연	서재중학교 3-6	빛과 눈물
이오석	서재중학교 3-7	새, 목마른 새
권명준	칠곡중학교 2-4	2·28
김주영	칠곡중학교 3-6	다람쥐
박현빈	경북고등학교 1-5	햇불
김윤재	경북고등학교 2-6	2월 28의 외침
김형묵	경북고등학교 2-6	하나의 불씨
장희수	경북고등학교 2-6	2·28공원을 걸으며

차형석	경북고등학교 2-6	2월 28일 어느날
최영준	경북고등학교 2-6	고등학생의 피 끓는 외침의 그날
김주현	경북고등학교 3-4	우리의 투쟁
서고운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2-6	민주花
황승환	능인고등학교 1-4	그 곳에서
한준오	능인고등학교 1-11	2월의 그날
김용록	능인고등학교 2-5	그날의 외침
김진수	능인고등학교 2-5	송고한 훈
김성현	능인고등학교 2-7	민주(民主)
추택호	능인고등학교 2-7	불씨
조수현	대구고등학교 1-5	등불
이지훈	대구고등학교 1-6	2·28민주운동과 선배님들
손일오	대구고등학교 1-6	2·28민주운동
강승훈	대구고등학교 1-7	2·28의 숨겨진 용기
고영국	대구고등학교 1-7	2·28을 기억하며
박지용	대구고등학교 1-7	개미 떼
성경진	대구고등학교 1-9	푸른 나라의 기상
이준철	대구고등학교 1-11	불꽃
임영준	대구고등학교 1-11	외침
이준혁	대구고등학교 2-1	새싹
이규태	대구고등학교 2-2	진실로의 발걸음
박예성	대구고등학교 2-4	대한의 심장
신진걸	대구고등학교 2-5	우리는 지금
박기철	대구고등학교 2-6	자유가 부른 웃음이 아닌 독재가 부른 눈물
정지영	대구고등학교 2-6	노란나비
심정훈	대구고등학교 2-6	자유와 민주주의
허동결	대구고등학교 2-6	씨앗
이효석	대구고등학교 2-7	별
김석중	대구고등학교 3-5	앞사귀
김창현	대구고등학교 3-5	2·28기념탑에서
김태훈	대구고등학교 3-6	추웠지만 따뜻했던 겨울
이승훈	대구고등학교 3-6	없었을 것이라면
김성수	대구고등학교 3-9	우산
허재준	대구고등학교 3-12	자성
정대한	대구대진고등학교 2-3	구멍이 찌꺼기 걸어내기
김민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1	너의 목소리
박새한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1	2·28의 태양
강예슬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2	역사의 승리자

강지수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2	2월의 노래
김은경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2	웃을 수 있는 이유
배진아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2	대나무
이정은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3	작은 영웅들
안가람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4	2·28민주화운동
이민지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4	까까머리들에게 빛지고 있었네
김명선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5	민주운동의 시발점 2·28민주운동
박효진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6	색의 함성
이수경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1	꽃 피는 2월
이은별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3	한 줄기 빛
표영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3	은어
김다은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4	달리기
강민지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5	이름없는 너에게
황지언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5	그 날
김요환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6	언제까지나
박지혜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6	등불
이수빈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6	불꽃축제
이채희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6	빛 향한 그 이름

▶ 제10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응모 · 입상 현황

구분 학교	응 모	입 상					계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	입 선	
초등	311		9	15	25	50	99
중등	55		6	10	10	15	41
고등	559	1	9	20	30	60	120
계	925	1	24	45	65	125	260

▶ 시상 내용

- 대구광역시장상 : 대 상 1명
- 대구광역시장상 : 금 상 15명
- 대구광역시교육감상 : 금 상 9명
- 대구지방보훈청장상 : 은 상 25명
- 2·28공동의장상 : 은 상 20명
- 2·28공동의장상 : 동 상 65명
- 2·28공동의장상 : 입 선 125명    계 260명
- 대구광역시교육감상(개인) : 지도교사상 3명(초등1, 중등1, 고등1)
- 대구광역시교육감상(단체) : 3개 학교(초등1, 중등1, 고등1)



※ 수상자에게는 상장 · 입상 작품집 수여.

## 대구고 2·28기념탑 준공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교 1·2학년생이 대한민국 헌정상 최초로 분연히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번져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게 하였으며, 그해 10월 1일 제2공화국을 탄생하게 하였다.

대구에서는 2·28민주운동을 기리기 위해 기념조형물로 현재 두류공원에 “2·28기념탑”이 있고, 경북고등학교에 1991년 5월 12일 제42회 졸업생들이 졸업 30주년을 기념해서 42회 동기생 이강소님이 설계하여 교정에 “2·28기념조각동산”을 건립하였고, 2004년 2월 28일 제42회 동기회에서 역사관 앞에 “경맥의 혼-2·28”이란 조형물을 이강소님이 설계하여 건립하였다.

대구고등학교는 1991년 10월 교정에 대고탑을 건립하였는데, 탑 뒷면 반원형 옹벽 화강석판에 2·28민주운동을 비롯한 지난 30여 년간의 대구고등학교의 역사와 대고인의 사랑을 새겨 영구 보전되게 한 바 있으며, 2·28민주운동 50주년과 개교 52주년을 맞는 2010년은 뜻깊은 해(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경술국치 100년, 2·28독립선언 100주년, 한국전쟁 60년 등)에 대구고등학교와 총동창회에서 2만 8천4백십4명 동창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난 2월 27일 기공식을 갖고 5월 30일 준공·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건립한 기념탑은 柳春秀(4회 졸업생, 이공건축회장)님이 설계하여 건립하였다. 이 탑은 무궁화 5엽과 별을 상징하고, 바닥의 검정색은 암흑시대를 상징하며, 5개 돌기둥은 불의와 부정에 맞서 항쟁한 대구고 1·2회 졸업생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 이 탑이 무궁화 5엽과 별을 상징함은 2·28민주화운동의 주축교 중의 한 학교였던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의 데모에 의해 1960년 10월 1일 제2공화국이 탄생한 그 뜻깊은 역사적 사실을 기리고 축하하기 위해 대구고등학교는 그 당시 “高”字에 백선(8mm) 한 선이었던 교표를 무궁화 5엽과 백선(8mm) 한 선에 “高”字를 넣어 校標(校章)를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 건립 준공한 기념탑은 대구고등학교 校章을 상징함과 동시에 무궁화와 별을 상징하고, 암흑시대에 목숨을 걸고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당시 1·2학년 학생들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상징하고 있어, 전 동문은 물론 후배들이 이 정신을 계승·발전하게 할 성지로 숭앙되고 영세 무궁토록 정신적 고향이 되어 우리들을 지켜 줄 것이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는 1992년 2월 14일 제10회 동기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본관 앞에 31년만에 그 당시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 제 10회 동기생 고주석(텍사스대) 교수님의 설계로 건립하였다.

1960년 2월 28일 민주화운동에 동참한 대구고등학교 교정에 50주년 만에 2·28기념 조형물이 건립되어 자라나는 2세들이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대한민국에 성숙된 민주주의 꽃이 만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각광받기를 기대한다. 卍





## 4·19혁명 제50주년 기념 대학생 전국순례단 출정식

— 대구2·28기념중앙공원에서 —

지난 6월 28일(월) 14시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4·19혁명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문화일보가 주관하는 제50주년 4·19혁명기념 “4·19혁명 사적지 대학생 전국순례 대장정 출정식”이 있었다. 선발된 대학생 70여 명, 대구중앙고교생 300여 명, 2·28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출정식에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안인욱 공동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2010년은 우리 나라 제2공화국 탄생 50주년,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2·28대구민주운동, 3·15의거, 4·19혁명 등이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4·19혁명기념사업회에서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대학생 순례단을 구성하여 대구·부산·마산·광주·대전지역 등 전국 4·19혁명 발발지와 그 사적지를 찾아 그 당시의 현장을 보고,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하는 등 4·19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되짚고, 그 숭고한 정신을 추앙하고 되새겨, 대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 의식과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이번 행사의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2·28대구민주운동 또한 50년을 맞은 해로, 50년 전 불의와 부정에 맞서 항거하고, 유린 당한 인권과 자유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대구의 고등학교 1·2학년생들의 순수한 정열이 피맺힌 절규되어 하늘을 치솟았고, 요원의 불길이 쬐불되어 독재 무릎 꿇리고, 뉘푸른 숭고한 정신 민주국가 잉태하여 창천의 별되어 영세 무궁 밝힐 1960년 2월 28일 목숨을 걸고 분연히 일어난 것이 “2·28대구민주운동”이라고 강조했다.





2·28대구학생의거는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2·28이 없었다면 3·15와 4·19는 우리 나라 민주역사에는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2·28대구학생의거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가진 사건이다. 그 당시 사회는 학자는 학자대로, 시인은 시인대로 오로지 몸조심, 입조심에 온 정신을 쏟아야만 했던 암울했던 암흑 시대였다고 말하고, 2·28대구학생의거 현장에서 목격한 저항시인 김윤식 선생은 대구 향촌동 “호수다방”에서 80여 행의 긴 시를 한 시간도 안 걸려 창작하시고, 시인 백기만 선생과 협의한 후 「대구일보」 이근우 문화부장에게 부탁드려 1960년 3월 1일자(화)에 “아직은諦念할 수 없는 까닭”이란 저항시를 기고하여 빛을 보게 한 것은 생사를 초월한 선생님의 송백같은 강인한 지조의 삶과 정신세계의 발로였기에 2·28기념공원에 시비를 건립하여 기리고 있다고 했다.

이번 순례 대장정이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간 1·2진 코스로 행해지지만 출발지를 2·28민주운동의 발상지인 이곳 대구로 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고, 2·28대구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가 크며, 이런 행사들을 통해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중심되어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한 운동을 전개하고 그 운동을 통해 소통과 총화를 이룩하고 국가 발전과 민족 중흥의 기수가 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

## 2·28기념중앙공원 청소년놀이광장으로 변신

2·28기념중앙공원이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도심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광장으로 개선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앞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연과 각종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004년 2월 개장했던 공평동 소재 2·28기념중앙공원을 폐쇄적이고 정적인 공원에서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공원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놀이 및 광장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초까지 무대조명 전기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의 열린 놀이 공간으로 더한층 다가서게 됐다. ▮



2·28 기념 중앙공원

## 녹음(綠陰)



엄 원 태

5월 숲은 어항 속처럼 푸르다

수초들 커튼이 드리워진 물속을 헤엄치듯, 송홧가루 흩날리는 숲길을 유유히 걷고 있는 나는 파란 치과용 마스크와 검은 선글라스를 썼다 햇살의 장침(長針)이 속살까지 파고들 때면, 숲은 이따금 온몸을 파르르 떨곤 했다

누구에겐들 푸르른 청춘의 한때가 없었겠냐만, 이 녹음(綠陰)은 서늘한 그늘이라야 비로소 제맛이다 골짜기에 흐르는 바람처럼 서늘한 침묵이라야 제격이다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어떤 내면(內面)이 숲의 녹음에도 있다

오늘은 이쯤에서 돌아가도 좋겠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을 마주하고 여유롭게 물 한 잔 들이켜는 때의 저녁 무렵, 여름의 앞날은 꽤나 창창할 것이다 ♪

---

1955년 대구 출생. 1990년 계간《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  
시집 『침엽수림에서』, 『소음에 대한 보고』, 『물방울 무덤』 등.  
대구시협상, 김달진문학상, 금복문화상(문학) 등 수상.

## 미모사처럼 나를 여민다



하 정 숙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 부닥쳐 오는 아픔에도 무더질줄 알았다. 사람들로부  
도 무덤덤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바늘 끝에 찢린 것 같은데도 명치끝이 아릴 만큼 마음  
에 마칼바람이 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서뽏서뽏  
걸어가고 싶다.

날마다 마주치는 소소한 아픔들이 한번 마주치는 커다란 고통보다 힘이 들 수 있다고 어  
느 작가는 말했다. 그렇다면 날마다 마주치는 자살한 행복들이 한번 마주치는 커다란 행운  
보다 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요즘은 통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적당히 과장하고 적당히 예의바르고 적당히 감추며 살고 싶다. 정답에 맞  
춰가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살아가면서 더욱 깨닫기 때문이  
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마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  
표를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는 것만 같아 그저 버겁다.

사무실 안이 연일 무덥다. 그런데 출입구 쪽에 서니 어디선가 바람 한 줄  
기가 지나간다. 둘러보니 입구는 바깥 통로와 창문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맞바람이 지나고 있었다. 사무실 안쪽은 여전히 후덥지근한데 입구는 이러  
게 시원하고 바람 한 자락에 마음까지 후련해지다니.

한참동안 맞바람 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뒤로도 바람이 마  
주치는 입구에 자꾸 발길이 머물렀다. 바람……. 그래. 살다보면 때론 이렇게  
바람이 필요할 때도 있을게다. 교과서처럼 반듯하게 사는 것만이 알찬 삶인  
것 같아도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한 자락에 잠시 숨 돌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삶의 여백이 아닌가.

아침저녁으로 출근하며 달리는 대구-구미 간 도로 옆의 산에 온통 지천인 초록이 무더위 속에서 마냥 귀찮은 듯 미동도 않을 때가 있다. 후끈후끈한 지열을 견디고 있는, 그 답답한 이어짐을 더 지루하게 하는 정지된 초록은 보는 이의 가슴까지 숨 막히게 한다.

그런데 오늘은 운전하며 바라본 산에 주렁주렁 달린 연노랑이 바람에 한껏 나풀대고 있다. 봄꽃들 다 지고 아카시아 흐드러질 때도 참고 있다가 이제야 긴 꽃을 늘어뜨리고 온 산을 차지한 채 보릿하게 나부끼는 밤꽃들이다. 저 나부낌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견뎠을까. 얼마나 많이 움츠리고 얼마나 많이 설렘을까. 사락사락 흔들리는 저 잎, 저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까.

밤꽃의 나부낌을 안고 집에 들어서서 딱 닫힌 베란다의 창을 활짝 열어젖혔다. 막혀 있던 바람이 마음껏 들어온다. 문득 나지막한 화분에 초록 얼굴을 빠끔히 내밀고 있는 미모사에 눈이 멎어 살짝 손을 대니 순식간에 잎을 오므린다. 작은 자극에도 소스라치게 놀란 미모사는 깃 모양의 잎이 또르르 말리다 못해 아예 고개를 떨어뜨리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 마치 전열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기가 죽은 요즘의 내 모습 같다.

손끝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가느다란 잎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닫히는 모습이 마치 부끄럼을 타는 것 같다고 하여 함수초라고도 불리는 미모사는 감춘 사랑, 민감, 섬세함, 예민한 마음이라는 꽃말도 같이 오므리고 있다. 그런데 미모사의 오므림은 결코 도망이 아니다. 잠시 숨죽여 있다가는 살며시 말린 잎을 다시 펴는 그 생명력은 정말로 신기하고 양증맞다.

정지된 초록보다 흔들리는 밤꽃에 숨을 고를 수 있듯이 정지된 정물화보다는 움직이는 풍경화가 훨씬 더 생명력 있다. 그래. 어쩌면 명치끝이 파르르 아픈 것도 살아 있다는 흔들림일 것이다. 지쳤다는 것도 열심히 뛰었다는 징표일지 모른다.

명지바람 한 줄기가 스며든다. 손끝을 내밀어 본다. 때론 은결된 마음에 움츠릴 때도 있지만 작은 손끝, 작은 바람 한 자락에 미세하게 떨리는 미모사가 되어 다시 설레고 싶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에부수수한 내 삶의 잎을 미모사처럼 긴실하게 여미리라. 허영부영 보내기도 했던 시간 속에서 꽃다지 같은 내 첫 마음을 명징하게 깨다듬으면서 말이다. ▮

대구 출생.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수료.

『문학예술』 수필 부문 신인상.

대구문인협회, 대구수필가협회, 대구가톨릭문인회, 영남수필문학회, 영호남수필문학회 회원.

현 (구미)금오공업고등학교 교사

## 제4차 임원회의



2010. 4. 13. 2·28사무실에서 제4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2·28기념관 건립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안인욱 의장, 홍종흠 고문, 정시식 이사, 김정길 고문, 권국현 고문, 정태일 부의장, 이방현 이사, 김상숙 이사, 박명철 사무총장)

## 햇불지 38호 제작 편집회의



지난 6월 7일 2·28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햇불지38호 편집위원회(위원장 김약수 대구미래대학 교수) 회의를 개최하고 50주년기념사업내용과 2/4분기추진계획을 논의하고 글짓기시상식, 대구고 2·28기념탑 건립의 역사적 내용을 특집으로 편집하기로 했다.



## 김주열 열사 범국민장 참석

지난 4월 11일 3·15의거 당시 1960년 4월 11일 11시 30분 김주열 열사를 인양한 마산 신과동 부두에서 거행한 김주열 열사 범국민장에 2·28 안인욱 의장 등 임원 다수가 참석하였다.(안인욱 의장, 최용호 고문, 김명환 이사, 박명철 사무총장)



## 2·28자연보호산악회 활동

### - 새만금 현장 탐방 -

지난 5월 28일 2·28자연보호산악회(회장 차용조)는 서해안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33km) 현장을 탐방하였다. 회원 38명이 참석한 이 날, 우리 나라 서해 새만금 지구 간척 종합개발 사업 현장을 둘러 보고 401km<sup>2</sup>의 방대한 외상 지역에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회원들은 삼성제약사와 흑인삼 효능에 대한 건강 설명을 듣고 뜻깊은 탐방 체험과 회원들간의 우의를 다졌다.





## 4·19 제50주년 기념식 참석



4·19 제50주년 기념식이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거행되었다. 안인욱 공동의장은 “2·28결의문”을 낭독하고, 4·19혁명 기념사업회 김길식 이사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14명의 유공자들이 건국포장을 수여받았으며,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2·28대구학생의거부터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이 완수될 때까지의 과정을 동영상을 통하여 관람하였다.



## 2·28 일지

- 4. 11. 김주열 열사 범국민장례식 참석  
마산 중앙 부두(안인욱 의장, 최용호 고문, 김명환 이사, 박명철 사무총장)
- 4. 11. ~ 4. 17. 대한민국 민주화의 효시 “2·28민주운동” 하루 3번(아침, 점심, 저녁)방송  
(CMB스페셜타임 32분 17초)
- 4. 13. 제4차 임원회의(안인욱 의장, 홍종흠 고문, 정시식 이사, 김정길 고문,  
권국현 고문, 정태일 부의장, 이방현 이사, 김상숙 이사)  
故 西芝 김윤식 시인 작품 ‘강이여 산이여 봄이여’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대구매일신문」(1960. 4. 15.) 4면에 게재된 것을 발견·복사
- 4. 19. 4·19 제50주년기념식 참석(대구동구문화체육회관, 안인욱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4. 23. ‘2·28민주운동 교육용 교재’ 배포, ‘2·28민주운동정신교양 교직원 연수’,  
‘회원가입’ 등과 관련한 사항 교육청과의 협의(교육정책국장실 국장,  
초·중등과장, 초·중등장학관, 담당장학사, 안인욱, 백진호, 박명철)
- 4. 26. 해군 천안함 46용사 추모참배(안인욱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4. 27. ‘2·28민주운동’ 교육용 교재 발간 언론기관에 홍보
- 5. 2. mbn(매일경제TV) ‘PD가 만난 사람(21분45초)’ “2·28민주운동 안인욱 의장,  
홍종흠·최용호 고문 인터뷰 내용” 17시 30분에 방송
- 5. 4. ‘2·28민주운동’ 교재 전국시·도 교육청, 교과부 발송
- 5. 6. ‘2·28민주운동’ 교재 지역교육청, 직할기관 등 배포
- 5. 12. 김종년 고문(경신학원 재단이사장) 별세 장례식 참석(안인욱 의장)
- 5. 16. 대구고부설방송통신고 2010학년도 교내 체육대회 참석(안인욱 의장)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행사 참석(안인욱 의장)
- 5. 27. 4·19민주화 출정식 업무협의 문화일보 유규하 전시사업팀장 일행 내방
- 5. 28. 2·28자연보호산악회회원(차용조 회장) 새만금 현장 탐방
- 5. 30. 대구고 “2·28민주운동기념탑 준공·제막식”(대구고 교정, 안인욱 의장,  
최용호 고문, 백진호 상임부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등 임원 다수 참석)
- 5. 31. 안인욱 의장 “교감·전문직 직무연수” 특강(대구교육연수원)
- 6. 6. 제55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대구알산충훈탑 안인욱 의장)
- 6. 7. 햇불 38호 편집회의
- 6. 28. 4·19혁명기념사업회 주최 “제50주년 4·19혁명기념 4·19혁명 사적지 대학생  
전국순례 대장정 출정식”에서 격려사(안인욱 의장)
- 7. 1. 제32대·민선 5기 대구광역시장 취임식에 참석(안인욱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제8대·민선 초대 대구광역시교육감 취임식에 참석(안인욱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7. 9. 제10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시상식(대구광역시교육청 대강당)

## 2010년도 회원가입 현황

2010년 뜻깊은 2·28민주운동 제50주년을 맞이하여 본회의 사업목적에 동의해 주시고 회원 가입을 해 주신 학생·교사·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7월 15일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가입 현황 (2010. 1. 13. ~ 2010. 7. 15. 현재)

연번	연월일	단체·개인	인원수(명)	금액(원)	추천자
1	2010. 1. 13.	서대구농협 조명래외 17명	181	240,000	김창호 이사
2	1. 22.	대구농고 48회	10	100,000	사무총장
3	1. 22.	이강사	1	10,000	"
4	1. 28.	대구고 3-12 장기영외 27명	28	28,000	의 장
5	2. 11.	대구상고(상원고) 3-1 박영두외 451명	452	452,000	"
6	2. 13.	권은자	1	10,000	"
7	2. 18.	김두환	1	10,000	"
8	2. 25.	대경어린이 교통안전교육원	1	100,000	사무총장
9	2. 25.	배철곤	1	20,000	의 장
10	2. 25.	백승교	1	20,000	"
11	2. 25.	육일회(서울)	단체	1,000,000	사무총장
12	3. 3.	경북여고 32회	단체	300,000	의 장
13	3. 10.	재경경북중고 42회 회원(권준화, 금동식, 김기근, 김병연, 김승국, 김종갑, 박의웅, 신춘길, 안명근, 유양하, 유용우, 윤건용, 이정남, 이재형, 이준노, 이희일, 장경용, 장철석, 차준재, 하재범)	20	200,000	"
14	4. 6.	화원고교 교사(권정희, 김기분, 남시일, 서재용, 권영대, 남주승, 남경우, 이한곤, 윤문희)	9	90,000	"
15	4. 6.	화원고교 박새현 학생외 275명	276	276,000	"
16	4. 7.	서원기 관장	1	10,000	"
17	4. 12.	CMB 황광주 사장	1	10,000	"
18	4. 21.	향토사연구원 주용영 교수외	13	13,000	"
19	4. 23.	김태홍	1	100,000	"

연번	연월일	단체 · 개인	인원수(명)	금액(원)	추천자
20	4. 26.	김은하, 이연수, 문상호	3	30,000	의 장
21	4. 27.	서보경, 이복웅	2	200,000	"
22	4. 29.	대구공고 전자기계과 1-2 강경옥외 313명	314	314,000	사무총장
23	4. 30.	경신고 1-1 고지환외 604명	605	605,000	의 장
24	5. 6.	정세진, 조홍근	2	20,000	"
25	5. 10.	조여화, 조동현, 정성진, 서창호	4	40,000	"
26	5. 11.	대구공고 식품화학공학과 1-1 김경태외 33명	34	34,000	사무총장
27	5. 11.	대구고 1-1 김기홍외 357명	358	358,000	의 장
28	5. 25.	배한연 교장, 이한철, 최영분, 배미란, 전경희, 권정희, 박미화, 이성순	8	80,000	"
29	6. 1.	경북고 안준호 교장, 강인규 교감, 이종운 교감, 박정미 교무부장, 서정화 1학년부장, 이흥도 사회교육부장	6	60,000	"
30	6. 1.	경북고 1-1 강서범외 537명	538	538,000	"
31	6. 1.	대구여고 1-1 권현경외 316명	317	317,000	"
32	6. 1.	미르건축 반정욱 소장	1	10,000	"
33	6. 8.	박준형	1	10,000	"
34	6. 11.	경대사대부고 1-1 강준호외 383명	384	384,000	"
35	6. 22.	지국현, 송희선 회비	2	20,000	"
36	7. 7.	경북여고 최교만 교장외 6명	7	80,000	"
37	7. 7.	경북여고 1-1 강수연외 506명	507	507,000	"
38	7. 13.	대구상원고 3-1 이우권의 311명	312	312,000	"

회비 납부 임원·이사 명단

오명옥, 양정봉, 이해봉, 최우섭, 박오균, 김상숙, 박정남, 김광백, 김교원, 김구원, 김무구, 김영수, 김용서, 김용웅, 김유조, 김전용, 박 원, 박중남, 서성구, 안기성, 우영주, 유명하, 윤병우, 윤정목, 이근창, 이영기, 이현세, 장무웅, 전건식, 정현치, 조상철, 홍광희, 최용호, 안인옥, 이수광, 정시식, 이원순, 안택수, 김종규, 최덕수, 김정길, 안윤식, 백승대, 양성호, 양구춘, 김명구, 박대근, 오승원, 정태일, 김광호, 정석재, 허노목, 강모인, 박수관, 이정순, 안영호, 이광조, 홍덕률, 김석희, 김중기, 이희영, 박규하, 이방현, 신한익, 이현희, 서성욱, 김길식, 양승을, 홍사만, 장만수, 장진영, 권국현, 김명환, 김익환, 이완식, 남중화, 차용조, 조삼승, 조 암, 김종인, 박정돈, 윤차수, 윤수동, 이양강

## 회비납부 안내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원 및 2·28민주운동을 기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기념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정기총회와 2·28민주운동 50주년 기념식을 비롯하여 퍼레이드 퍼포먼스,  
역사의 현장 사진전, 기념공연 등 기념행사와 2·28 햇불지 발간, 제10회 2·28민주운동  
글쓰기 공모 등 기념사업을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상반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2·28대구민주운동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어 숙원사업이었던  
'2·28기념관'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과 활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회원의 참여와 임원의  
분담금과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과 새로운 세대의 확충을 위한  
회원배가 운동이 필요한 이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원분담금** : 공동의장 연회비 50만원, 부의장 연회비 30만원,  
감사·이사 연회비 10만원, 일반 만원 이상, 학생 천원 이상
- **자료회원** : 1년 2만원(2·28의 햇불, 자료집 발송)
- **납부기간** : 2010년 7월 31일까지
- **납부방법**

**은행계좌이체 : 대구은행 018-05-002264-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본 법인에 납부하신 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 손금처리 및 연말소득 공제될 수  
있으며 본회 전산에 입력되어 영구보존됩니다.





# 희망이 함께 희망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이뤄지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당신의 희망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랜 희망이 실현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당신의 희망과 지역경제가 함께 더 크게 커져갈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경제의 작은 희망이 되겠습니다.